



## 204위 > 59타

‘무명’ 골퍼 ‘꿈의 59타’ 놀러

허드슨 스와포드(미국)가 23일 미국 팜스프링스의 라킨타 골프장 스타디움코스(파72)에서 열린 PGA투어 커리어빌더 챌린지 4라운드에서 우승한 뒤 헤드윈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스와포드 PGA 첫 우승

### 헤드윈 1타차 준우승

### 한국 김민휘 공동17위

허드슨 스와포드(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세계랭킹 204위인 스와포드는 23일 미국 팜스프링스의 라킨타 골프장 스타디움코스(파72)에서 열린 PGA투어 커리어빌더 챌린지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적어낸 스와포드는 전날 ‘꿈의 스코어’인 59타를 기록했던 애덤 헤드윈(캐나다)을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4년부터 PGA투어에 참가한 뒤 그해 소니오픈과 프라이스닷컴오픈에서 8위에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투어 4년차인 스와포드는 첫 우승 상금으로 104만4000달러(약 12억3000만원)를 받았다.

4라운드를 공동 3위로 출발한 스와포드는 15번 홀(파 4)에서 버디를 낚아내며 버드 콜리(미국)와 함께 공동선두로 뛰어올랐다. 기세가 오른 스와포드는 이어 16번

홀(파 5)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내면서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스와포드는 17번 홀(파3)도 버디로 처리하며 한 걸음 더 도망갔다.

스와포드는 우승 후 인터뷰에서 “마지막 4개의 홀에서 3개의 버디를 잡아낸 것이 특별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6번 홀의 두 번째에 샷에 대해선 “오늘 경기 중 가장 좋은 스윙”이라며 “오히려 공이 홀에 더 가깝게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제 더블 보기를 했다는 점을 생각하고 만족했다”고 말했다.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13개를 잡

아내 꿈의 59타를 기록한 애덤 헤드윈(캐나다)은 이날 2언더파 70타를 쳤다. 헤드윈은 12번 홀까지 단독선두를 달렸지만, 13번 홀(파 3)에서 첫 번째 샷이 러프에 빠진 뒤 보기를 기록하면서 2위권으로 떨어졌다. 헤드윈은 17번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막판 추격에 나섰다. 결국 스와포드에 1타차로 무릎을 꿇었다.

탈장 수술을 두 번 받고 석 달 만에 필드에 복귀한 필 미켈슨(미국)은 2언더파50타를 쳐 공동 21위(11언더파 277타)로 복귀전을 마무리했다. 한국의 김민휘는 이날 2언더파 70타를 때려 공동17위(12언더파 276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11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개최

### 한-일-대만 도쿄서 격돌

오는 11월 한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프로야구 국가대항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sia Professional Baseball Challenge)’이 열린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3일 “아시아 3개국 프로야구 기구 회의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이 참가하는 아시아 국가대항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개최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는 KBO 양해영 사무총장을 비롯해 일본 NPB 이하라 아츠시 사무국장, NPB 엔터프라이즈 이마무라 츠카사 대표, 대만 CPBL 주강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개최는 KBO의 제안으로 지난해 5월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KBO, NPB, CPBL 등 3개 기구는 아시아 야구의 발전과 교류를 위해 기존 아시아시리즈를 대체할 국가대항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야구의 올림픽 정식종목 유지를 위한 야구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회 창설에 합의했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 돔에서 진행된다. 경기는 팀당 2경기씩 예선 3경기과 1, 2위 팀 간 결승 1경기 등 총 4경기가 열린다. 우승팀에게는 2000만엔, 준우승 팀에게는 500만엔의 상금이 수여된다. 애초 KBO가 한국에서 첫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불입을 위해 초대 대회 장소를 일본 도쿄돔으로 결정했다.

3개 기구는 젊은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각국의 유망주와 스타 선수 발굴을 위해 연령·프로 입단 연도 등 출장 선수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참가 자격은 24세 이하(2017 대회 기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프로 입단 3년 차 이하의 선수로 제한된다. 제한 규정과 별도로 와일드카드도 3명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은 2017년 이후 4년에 한 번씩 개최될 예정이며, 야구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여부에 따라 개최 시기가 조정될 예정이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2017’은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니퍼트, 두산과 24억5천만원 재계약

### 외국인 선수 역대 최고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에이스 선발 투수 터스틴 니퍼트(36·미국)가 KBO 리그 역대 외국인 선수 최고 몸값에 두산과 재계약했다.

두산은 니퍼트와 총액 210만 달러(약 24억5000만원)에 재계약했다고 23일 발표했다. 200만 달러 돌파는 니퍼트가 역대 KBO리그 외국인 선수 중 최하다.

지금까지 KBO리그 외국인 선수 최고 몸값은 한화기 투수 에스밀 로저스(32·도미니카공화국)를 영입할 때 쓴 190만 달러였다. 그는 지난해 두산의 한국시리즈 2연패, 21년 만의 정규시즌·포스트시즌 통합우승의 주역이다.

니퍼트는 2016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KBO리그 최우수선수(MVP)상과 골든글러브를 받았다. 정규리그에서 22승 3패, 평균자책점 2.95를 기록했다. 다

승, 평균자책점, 승률(0.880) 부문 1위다.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는 8이닝 2피안타 무실점의 무서운 호투로 NC 다이노스 강타자를

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2011시즌 이래 6년째 한 유니폼을 입은 니퍼트는 어느덧 완전한 ‘두산 맨’이 됐다.

그는 2015년 150만 달러를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20만 달러로 깎였다. 2015 시즌에 부상으로 6승 5패 평균자책점 5.10에 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시즌에 완벽하게 부활하면서 KBO리그 외국인 선수 몸값의 새 장을 열게 됐다.

두산은 올해 한국시리즈 3연패를 달성할 거라는 큰 기대를 받는다. 그 중심에 니퍼트가 있다. /연합뉴스



승, 평균자책점, 승률(0.880) 부문 1위다.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는 8이닝 2피안타 무실점의 무서운 호투로 NC 다이노스 강타자를

## “선배한테 더 잘 어울려요” “밥 10번 살게”

### KIA 이흥구, 등번호 34 최형우에 양보

“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후배와 “밥 10번 사겠다”는 선배. 새 유니폼, 새 번호로 시작하는 KIA 최형우와 이흥구의 이야기다.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KIA 선수단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익숙했던 유니폼이 아닌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맞게 되는 2017시즌, 아예 백넙버까지 바꾸고 출발을 하는 선수도 있다.

포수 이흥구도 그중 한 사람이다. 자의적으로 번호를 선택한 이들과 달리 이흥구는 ‘어쩔 수 없이’ 번호 이동을 하게 됐다. 이흥구는 2013년 입단 이후 34번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삼성에서 34번을 달고 맹활약했던 최형우가 FA로 KIA 선수가 되면서 이흥구는 선배에게 흔쾌히 자신의 번호를 내어주었다.

34번의 ‘옛 주인’은 지난해 챔피언십필드 실내연습장에서 진행된 프로필 사진 촬영 현장에서 ‘새 주인’을 마주했다.

“34번을 보는데 선배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라며 환한 표정을 지은 이흥구는 “제 새 번호(27번)도 괜찮지 않나?”며 등을 내보였다.

최형우는 자신을 위해 익숙한 번호를 선택 내어준 이흥구에게 ‘밥 공약’을 했다.

“시즌 때 잘 챙겨주시겠조”라는 이흥구의 이야기에 최형우는 “밥 10번 사겠다”고 호쾌하게 웃었다.

이흥구가 27번을 달게 되면서 27번에 눈독을 들였던 후배 김윤동은 대신 28번을 선택했다. 군 복무를 끝내고 KIA에서

첫 시즌을 맞게 된 임기영은 같은 사이드암인 박준표가 군대에 가면서 넘겨놓은 38번을 달았다.

지난 시즌 중반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육성번호를 사용했던 또 다른 ‘예비역’들도 정식번호를 달고 그라운드를 뛰게 됐다.

좌완 박경태와 손동욱이 각각 57번, 49번을 선택했고 우완 김중훈은 66번을 달았다. 외야수 이준호는 52번, 가장 최근에 민간인이 된 박지훈은 39번 유니폼을 입고 복귀를 준비한다. 돌아온 ‘잠수함’ 손영민은 지난해 은퇴식을 하고 그라운드와 작별한 대선배 서재응이 쓰던 26번을 물려받았다. 역시 지난 시즌 은퇴를 한 내야수 김민우의 9번은 외야수 오준혁의 차지가 됐다.

최형우의 FA 보상 선수로 삼성으로 이적한 강한울의 13번은 내야수 이인행이 가져갔다. 49번을 사용했던 투수 김진우의 11번을 달고 새 출발을 꿈꾸고 있다.

우선 지명을 받고 입단한 투수 유승철이 40번 선수가 됐고 좌완 이승호 58번, 사이드암 박진태 46번, 외야수 김석환 10번 등 ‘아기 호랑이’들의 또 다른 이름도 정해졌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등록명과 번호도 확정됐다. 외야수 로저 베나디나는 ‘버나디나’로 등록돼 50번 유니폼을 입는다. 좌완 팻 딘은 성과 이름 그대로 ‘팻 딘’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포터의 백넙버는 45이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새 유니폼을 입은 KIA 최형우와 새 번호를 단 이흥구가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前 kt 3루수 마르테



캔자스시티 투수 벤투라

## 운명의 장난

### ML 마르테·벤투라 같은 날 교통사고로 숨겨

프로야구 kt 위즈에서 2년 동안 주전 3루수로 활약한 엔디 마르테(34)가 마지막으로 출전한 메이저리그 경기는 2014년 8월 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캔자스시티 로열스전이였다.

그는 애리조나 소속으로 9회말 2사 후 대타로 나가 삼진으로 물러났다. 그날 캔자스시티의 선발투수는 100마일(약 시속 161km)을 던지는 ‘강견’ 요다노 벤투라(26)였다.

한때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던 마르테는 기량을 꽃피우지 못하고 2015년 한국으로 건너갔고, 벤투라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이렇게 서로 다른 궤적을 남긴 두 선수가 운명의 장난처럼 23일 같은 날, 같은 이유로 고국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마르테는 도미니카공화국 샌프란시스코 마코리스 인근 도로에서, 벤투라는 후안 아드리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졌다.

벤투라는 2008년 캔자스시티에 입단

해 한 팀에서만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다. 2013년 빅리그 데뷔 후 2014년부터 불박이 선발투수로 자리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뒀다. 2015년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에 일조했다.

ML 유망주였던 마르테는 2015년 kt 위즈에서 새 야구인생을 시작, 2년 동안 타율 0.312, 42홈런, 163타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메이저리그는 두 선수의 사망에 은총 추모 분위기다. 롭 만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오늘은 모든 야구계, 특히 캔자스시티와 도미니카공화국 야구팬이 사랐던 벤투라와 마르테가 세상을 떠난 몹시 슬픈 날이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해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던 김아두치는 “마르테가 떠났다는 건 끔찍한 뉴스다. 야구와 인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던 훌륭한 선수가 너무 일찍 떠났다.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벤투라는 2008년 캔자스시티에 입단 /연합뉴스